

실무경비한 전임 증원, SW융합교육의 마지막 매듭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국제】 소프트웨어융합학과(SW 융합학과)가 설립된 지 다섯 학기가 지났다. 학과 운영이 안정화되는 현재 ‘SW중심대학사업’에서 비롯된 성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실무 교육의 내실화 과정이 정제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학교의 교수 임용제도와 SW융합학과의 방향성이 서로 맞지 않아 전임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W융합학과는 기존 학과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타 전공과의 융합과 실무 기초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SW융합학과 학생들은 2학년이 되는 시점에 본인의 융합 전공(트랙)을 결정한다. 이때 선택한 트랙에 따라 교과 과정이 세분화되며, 실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SW대학 학생 대상의 현장 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SW중심대학사업 선정이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의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돼 4년간 총 7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으며, 이후 2021년 평가를 거쳐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70억 SW인프라 구축에” 타 학문과 연계 통한 융합교육 확대/대학주보 제1619호 5면, 2017.04.17)

‘산학필수’ 교육 불투명 전임교원 인프라 확충 필요

SW중심대학사업단은 SW대학 학생들에게 기업과 학교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HN Entertainment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형률(컴퓨터공학 2013) 씨는 “실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발도구를 접해볼 수 있었다”며 “현업 개발자들과의 스테디를 통해 SW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1년에 약 30명의 학생이 방학 중 해외연수에 참여한다. 특히 미국 새너제이주립대 ‘SCSTIP(Silicon Valley Software Technology & Innovation Program)’ 프로그램은 인근 실리콘밸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김가영(컴퓨터공학 2017) 씨는 “실무에서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플랜들을 설계해보는 경험이 새로웠다”며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컴퓨터공학) 단장은 “사업 이전과 비교했을 때 SW대학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대학교라는 우물을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장을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SW융합학과 출범 당시 전임교수는 2명이었다. 이후 2명이 충원됐지만, 한 명이 그만두면서 다섯 학기가 지난 현재 SW융합학과 소속 전임교수는 3명이다. 현재는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산학겸임교수인 실무 재직자가 부족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타 전공과의 융합 교육을 지향한다는 학과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총 202명의 SW융합학과 학생들에게 학과의 이념에 부합하는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주체가 3명뿐이란 사실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15명이 전임교수로 소속된 컴퓨터공학과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뚜렷해진다.

더욱이 SW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8년부터 SW대학 학생들은 실무 현장에서 쓰이는 개발도구와 방법론에 대한 강의(산학필수)를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실무 재직자들이 산학겸임교수로 초빙돼, 학생들에게 산학 교육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발도구를 활용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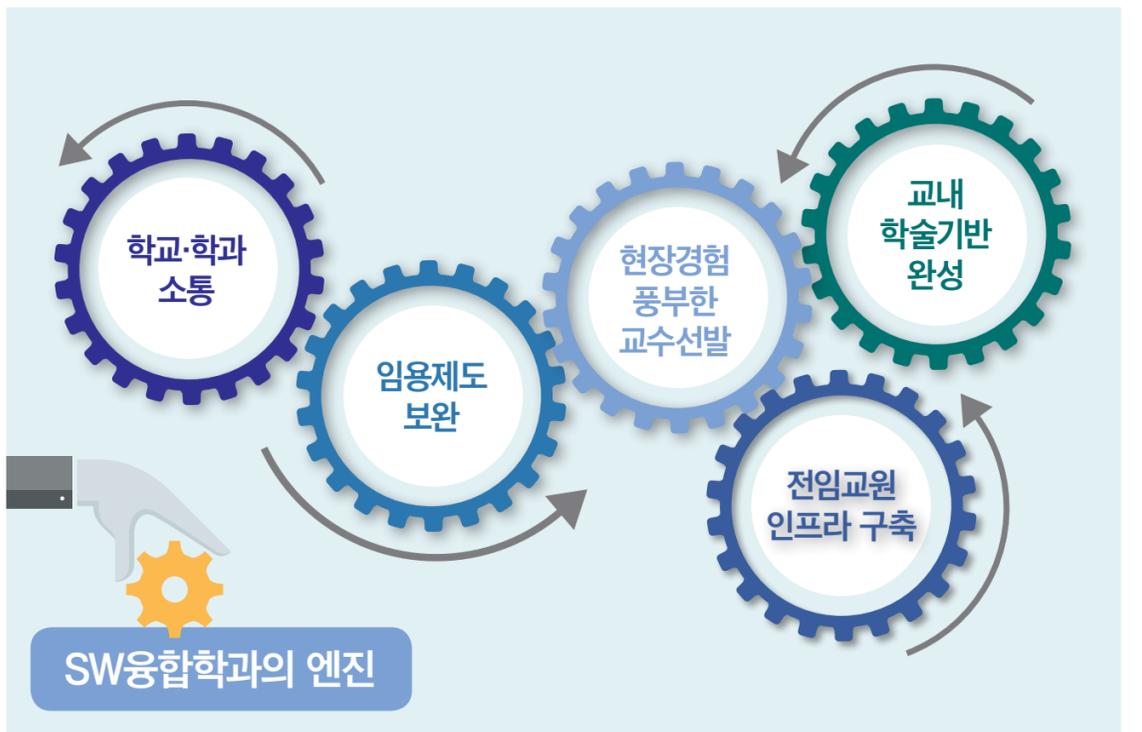
‘지원자격’에 발목잡혀 임용제도 보완 이루어져야

단장은 산학겸임교수로 학생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이들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실무에 재직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수들은 현재 SW중심대학사업단 소속으로, 이들의 임용 및 계약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액 SW중심대학사업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SW중심대학사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1년부터 산학필수 항목에 대한 교육과 겸임교원의 채용·재 채용 여부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만큼 SW융합학과의 전임교원 증원은 필수다. 3명의 전임교수가 매우 부족한 부분은 ‘유통기한’이 있는 겸임교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SW융합학과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전임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SW융합학과가 학과의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전임교원의 증원을 통해 SW융합학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SW중심대학사업 종료 이후까지도 실무 교육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임교원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선 각 단과대별로 상이한 지원자격을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SW대학의 2019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채의 경우 박사 이상의 학위와 최근 4년 간 SCI 논문 4건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구했다.

문제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무 재직 기간에 박사학위 취득, SCI 논문이 등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 경험에



서 강점을 보이는 지원자들이 연구·논문실적까지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자격이 우선 만족돼야 하는 상황인 탓에, SW융합학과의 이념에 부합하더라도 연구·논문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SW융합학과의 전임교원 채용은 우리학교의 교원 채용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연구실적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교수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연구·논문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전임교원 채용의 등용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캠퍼스 교무팀 지성환 계장은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별채용을 통해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칙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1조 「특별채용 자격」이 존재하지만, 특별채용에서도 ‘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지원할 때 논문실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결국 실무 경험과 능력만으로 전임교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은 특별채용에서조차 막혀있는 셈이다.

SW융합학과는 여태껏 교원 채용이 있는 학기마다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내왔다. 학과 출범 이후 공채를 통해 SW융합학과의 전임교원이 채용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은 매년 자격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사학위’, ‘SCI 논문’이란 자격요건이 SW융합학과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기준인지는 의문이다.

교내 실무 교육이 신설 당시의 기대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주민하(SW융합학 2017) 씨는 “학과 특성상 교수들의 실무 능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론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우대해서 교수로 뽑아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SW융합학과가 실무 교육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교수 임용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SW융합학과의 전임교수 증원에 대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융합학과의 학문적 기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학과와 학교의 충분한 소통이 더욱 요구된다.